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미 통상 관계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12월 미 선행 경제지표, 모멘텀 잃어
- Bloomberg: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시행되면 비용 상승
- CNNBUSINESS: 트럼프 대중국 관세 10% 부과도 비용 상승
- WSJ: 트럼프 명령으로 연방 공무원 일자리 불안정해져

[미국 금융]

- JP모건: 트럼프의 정권 교체와 주목할 점들
- Bloomberg: S&P500 최고치... AI로 테크주 랠리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 서명 행정명령들은?
- Bloomberg: 트럼프, 미국을 AI 슈퍼 파워로... 관련 제한 규정 줄여

[에너지]

- Bloomberg: 추위 때문에 전력 수요 최고치 기록
- Bloomberg: 트럼프가 미 석유 비축량을 늘리는 이유

[부동산]

- Bloomberg: 미 모기지율 7.02%...6주 만에 첫 하락

[미중 관계]

- Bloomberg: 트럼프, 중국과 유럽에 관세 위협
- WSJ: 중국,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위협 느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아일랜드 항공사 “트럼프가 보잉을 지지할 것”
- Bloomberg: 아마존, 캐나다 창고 폐쇄... 일자리 1천9백개 사라져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Leading Indicators Lose Momentum as 2024 Ends

12월 미 선행 경제지표, 모멘텀 잃어

- 미국의 경제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12월 말 약간 후퇴했다.
- 오늘 수요일,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미 선행경제지표(Leading Economic Index)는 11월 0.3% 증가했으나, 12월에는 0.1% 감소했다.
- 선행경제지표는 제조 신규 주문, 실업수당 청구건 등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향후 7개월 동안 비즈니스 사이클의 상황을 예상하는 지표다.
- 컨퍼런스 보드의 Justyna Zabinska-La Monica는 이 같은 지표 하락이 제조 수요 둔화, 일자리 시장 약세, 건축 허가 건수 하락, 소비자 신뢰지수 하

락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Justyna는 미국이 아직 트럼프 이후 나타난 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Cost Could Be High If Trump Follows Through on Canada, Mexico Tariffs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시행되면 비용 상승

- 현재 트럼프는 보편 관세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해당 관세가 시행될 경우 가솔린, 자동차, 주택, 식료품 등에 가격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많이 수입하는 자동차와 오일의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멕시코산 야채 등 식료품 가격과 캐나다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주택용 목재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멕시코와 캐나다도 피해를 보아 대미 수출 8천9백억 달러 중 70%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What will cost you more if Trump places a 10% tariff on all Chinese goods

트럼프 대중국 관세 10% 부과도 비용 상승

- 트럼프는 어제 화요일, 빠르면 2월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소비자 전자 제품처럼 관세 예외인 제품도 있었다. 작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총 4천10억 달러의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 중 12%인 470억 달러 규모의 통신장비를 수입했었다. 이는 12월을 제외하고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수입품이었다.
-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390억 달러 상당의 컴퓨터 장비 수입이었다. 370억 달러 상당의 장난감, 보석류, 운동장비 등의 수입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외 없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CNNBusiness 기사

WSJ: An Anxious Federal Workforce Bids Goodbye to Job Stability and Remote Work

트럼프 명령으로 연방 공무원 일자리 불안정해져

- 어제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에 주 5일 출근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불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연방 공무원 노조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화요일 연방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담당 직원들은 오늘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유급 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중단 명령에 따라 사무실이 폐쇄되기 때문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JP모건: Trump's Second Act: Regime change and what to watch 트럼프의 정권 교체와 주목할 점들

- 트럼프 취임식 첫날 발표는 당초 예상대로 비상 권한을 우선 사용하는 행정명령이었다. 중앙집권적이고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다운 의사 결정이었다. 또한 국경 안보 강화와 에너지 독립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 트럼프 취임식 연설의 핵심은 무역 시스템 개편이었다. 높은 관세의 리스크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연방 예산 조정안은 여전히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는 규제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보단 규제 완화를 선호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모든 규제를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트럼프는 1기 정부는 2020년 말 규제 완화에 따른 절감액이 1천9백8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많은 규제 완화 건이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 바젤III 최종안과 비은행 규제 강화는 진척이 없었다. 해당 규제는 기존 규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M&A 합병 승인 속도는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자본 제약을 통해 기후 변화와 DEI 정책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끊임없는 갈등'을 수용하기 힘든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멕시코,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언급은 미국의 영토 확장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제한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

JP모건 기사

Bloomberg: S&P 500 Hits Record High as AI Powers Tech Rally

S&P500 최고치... AI로 테크주 랠리

- 빅테크와 대형주의 랠리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S&P500은 거의 1% 상승한 6,100에 근접하면서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보였다.
- 소프트뱅크와 OpenAI가 AI 인프라를 위한 조인트 벤처를 발표해 오라클이 7% 상승하며 어제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 넷플릭스도 구독자의 대규모 확대로 주가가 11% 상승했다. Travelers Cos와 Procter & Gamble Co.도 주가가 급등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펀더멘털이 강세이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A List of Trump's Key Executive Orders—So Far 트럼프 서명 행정명령들은?

- 선천적 자동 시민권 취득 종식을 포함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10개 이상의 주정부가 수정 헌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 트럼프는 미국의 공식 성별 기준으로 오직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는 행정명령, 캐나다와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편 관세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 또한 파리 기후 협정 탈퇴,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75일간의 유예,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요건 축소, 발전소 건설과 화석 연료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국가 에너지 위기 선포 행정명령을 내렸다.
- 추가로 세계보건기구(WTO) 탈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 효율부 신설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 Pushes to Make US an AI Superpower, With Fewer Guardrails

트럼프, 미국을 AI 슈퍼 파워로... 관련 제한 규정 줄여

-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AI에 신중하게 접근했다. 반대로 트럼프는 AI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AI 안전성과 기후 우려 등 바이든 정부의 규제 정책은 대폭 약화시키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 트럼프는 바이든의 AI 규제 관

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안전 시행, AI 개발 업자들의 투명성 요건을 즉시 삭제했다.

- 어제 화요일, 소프트뱅크, OpenAI, 오라클의 주도로 관련 AI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1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점차 적어도 5천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Deep Freeze Propels Power Demand on Largest US Grid to Winter Record

추위 때문에 전력 수요 최고치 기록

- 미국 동부가 130년 만에 최악의 눈 폭풍을 맞은 후 겨울철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워싱턴에서 일리노이까지 이어지는 PJM Interconnection의 전력 소비량은 145기가와트에 달했다. NRGstream에 따르면 PJM의 벤치마크 서부 허브 전력 가격은 오늘 수요일 아침 742.91달러까지 상승했다. 화요일보다 세 배 이상 오른 것이다.
- PowerOutage.us에 따르면 오늘 수요일 오전 텍사스, 루이지애나, 조지아, 플로리다에서 6만7천749명의 고객이 전기가 끊긴 상태다.
- 교통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 전역에선 1,524편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제설기가 부족한 남부 고속도로는 폐쇄되거나 거의 통행할 수 없는 상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y Trump Is Pledging to Refill the US Oil Reserve

트럼프가 미 석유 비축량을 늘리는 이유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석유 비축량을 최대치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비축량을 늘리면 1970년대 석유 파동과 같은 유가 상승 시도로부터 미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석유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과시할 수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 전략 석유 비축량을 판매했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비축량의 절반 정도가 소진됐다.
- 트럼프가 비축량을 최대치로 채우려면 240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구매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가를 상승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공약을 위협할 수 있다.

- 또한 그 정도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Bloomberg: US Mortgage Rates Drop to 7.02%, First Decline in Six Weeks 미 모기지율 7.02%...6주 만에 첫 하락

- 오늘 수요일, 모기지 은행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월 17일로 끝나는 주에 30년 만기 미 모기지율이 7.02%로 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6주 만에 첫 하락이다.
- 모기지율이 떨어지면서 전주부터 급증했던 대출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MBA 주택 구매 신청 지표는 0.6% 증가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융자 지표는 지난주 2.9% 감소했다.
- 모기지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주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 지표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바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모기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중 관계]

Bloomberg: Trump Threatens 10% Tariff on China, Cites Trade Deficit With EU

트럼프, 중국과 유럽에 관세 위협

-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어 취임 둘째 날인 어제, 중국과 유럽연합을 관세로 위협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행사에서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보내고 있다. 이를 근거 10%의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트럼프는 유럽연합으로부터 3천5백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4월 1일까지 미국과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과 경제 관계를 조사할 것을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
- 해당 검토 기간 동안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해결할 10주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됐다. 어제 화요일 Ding Xuexiang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Trump Keeps China Guessing on Tariff Threats

중국,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위협 느껴

- 이번 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바로 올리지 않고 중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기관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평가하도록 지시했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
- 트럼프는 동시에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마약 유입 중단에 협조하지 않으면 2월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도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어제 화요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차이와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엄청난 공동 이익과 협력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Ryanair Sees Trump as Boeing 'Champion' in Rivalry With Airbus

아일랜드 항공사 “트럼프가 보잉을 지지할 것”

-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 Ryanair의 대표 Eddie Wilson은 트럼프가 미국의 산업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의 복귀가 보잉의 경쟁력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잉은 2024년 1월 737맥스 기종의 사고와 2024년 말 두 달에 걸친 파업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했었다. 그 사이 보잉의 라이벌인 유럽의 에어버스는 두 배나 많은 비행기를 납품했었다. 그 중 상당수가 Ryanair의 라이벌인 EasyJet와 Wizz Air에게 갔다.
- Wilson은 “보잉은 이제 파업에서 벗어나 막 생산을 시작했다. 보잉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Ryanair은 2026년 중반까지 보잉의 가장 큰 737 기종인 맥스10을 자사 비행기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azon to Close All Warehouses in Quebec, Eliminating 1,900 Jobs

아마존, 캐나다 창고 폐쇄... 일자리 1천9백개 사라져

- 아마존이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모든 창고를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 최근 사업을 검토한 결과, 아마존이 직접 창고를 운영하기보다 현지 중소 기업을 통하는 제3자 배송 모델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약 1천9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이번 결정이 노조 설립과는 무관한 결정이며, 다른 곳에서도 창고를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우려 완화에 강세 마감...다우 1.2%↑
애플, 목표주가 하향에 3%↓...엔비디아 2% 오르며 '시총 1위' 재탈환
국제유가, 트럼프발 공급과잉 우려에 하락...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래일인 21일(현지시간)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7.98포인트(1.24%) 오른 44,025.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58포인트(0.88%) 오른 6,049.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58포인트(0.64%) 오른 19,756.78에 각각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